■ 고사성어 ⑯

由江 權丞世

경북 영주생 검교공파 34세
-약력-
·개인전4회, 초대그룹전250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운영위원, 심사위원 역임
·영남미술협회 회장
·유강 서화연구원 원장

삼고초려(三顧草廬)

초가집을 세 번 찾아간다는 뜻. 곧 ①사람을 맞이함에 있어 진심으로 예를 다함[三顧之禮]의 비유. ②윗사람으로부터 후히 대우받음의 비유.

후한 말엽, 유비[劉備 : 자는 현덕(玄德), 161-223]는 관우[關羽 : 자는 운장(雲長), ?~219]-장비[張飛 : 자는 익덕(益德), 166?~221]와 의형제를 맺고 한실(漢室) 부흥을 위해 군사를 일으켰다. 그러나 군기를 잡고 계책을 세워 전군을 통솔할 군사(軍師)가 없어 늘 조조군(曹操軍)에게 고전을 면치 못했다. 어느 날 유비가 은사(隱士)인 사마휘(司馬徽)에게 군사를 천거해 달라고 청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복룡(伏龍)이나 봉추(鳳雛) 중 한 사람만 얻으시오"

"대체 복룡은 누구고, 봉추는 누구입니까?"

그러나 사마휘는 말을 흐린 채 대답하지 않았다. 그후 제갈량[諸葛亮 : 자는 공명(孔明),181-34]의 별명이 복룡이란 것을 안 유비는 즉시 수레에 예물을 싣고 양양(襄陽) 땅에 있는 제갈량의 초가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제갈량은 집에 없었다. 며칠 후 또 찾아갔으나 역시 출타하고 없었다.

"전번에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이거, 너무 무례하지 않습니까? 듣자니 그자는 아직 나이도 젊다던데…"

"그까짓 제갈공명이 뭔데. 형님, 이젠 다시 찾아오지 마십시오."

마침내 동행했던 관우와 장비의 불평이 터지고 말았다.

"다음엔 너희들은 따라오지 말아라."

"관우와 장비가 극구 만류하는데도 유비는 단념하지 않고 세 번째 방문길에 나섰다. 그 열의에 감동한 제갈량은 마침내 유비의 군사가 되어 적벽대전(赤壁大戰)에서 조조의 100만 대군을 격파하는 등 많은 전공을 세웠다.

그리고 유비는 그 후 제갈량의 헌책에 따라 위(魏)나라의 조조, 오(吳)나라의 손권 (孫權)과 더불어 천하를 삼분(三分)하고 한실(漢室)의 맥을 잇는 촉한(蜀漢)을 세워 황제[소열제(昭烈帝), 221-223]를 일컬었으며, 지략과 식견이 뛰어나고 충의심이 강한 제갈량은 재상이 되었다.

살신성인(殺身成仁)

사신을 죽여서라도 인(仁)을 이룬다는 뜻으로, 인도(仁道 : 人道)를 실현하기 위해 목숨도 버린다는 말.

이 말은 춘추시대, 인(仁)을 이상의 도덕으로 삼는 공자(孔子)의 언행을 수록한 <논어(論語)> <위령공편(衛靈公篇)>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志士仁人 (지사인인)]
삶을 구하여 '인'을 저버리지 않으며
[無求生以害仁 (무구생이해인)]
시신을 죽여서라도 '인'을 이룬다.
[有殺身以成仁(유살신이성인)]

공자 사상의 중심을 이루는 '인'의 도는 제자인 증자(曾子)가 <논어(論語)> <이인편(里仁篇)>에서 지적했듯이 '충(忠)과 서(恕)'에 귀착한다.

부자(夫子 : 공자에 대한 경칭)의 도는 '충' '서'일 뿐.

[夫子之道 忠怒而已矣(부자지도 충서이이의)]

'충'이란 자기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정신이고, '서'란 '충'의 정신을 그대로 타인에게 미치게 하는 마음이다. 증자는 공자의 '인'이 곧 이 '충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다.

■ 우강 권이혁 전 장관 에세이

신문기자

신문기자라는 직업이 대단히 어려운 직업이라는 사실을 나는 여러 번 느껴왔다. 민심을 끌어나가는 직업이니 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신문기자 출신의 정치인이 많은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비슷하다고 본다.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정치인 중에는 신문기자 출신이 상당히 많다.

민중의 사고(思考)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직업의 하나가 신문기자이니 그만큼 신문기자의 책임이 큰 것도 사실이다. I·T의 발달로 신문의 영향력이 다소 떨어지지 않았느냐는 의견이 있기도 하지만, 여전히 신문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나는 과거에 3개 부처의 장관을 지낸 일이 있는데 그때 얻은 결론의 하나가 장관은 언론과 국회를 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부내의 일은 차관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는 소견이었다.

이제까지의 나의 삶을 회고하여 보면 신문기자와 접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다. 그래도 행정부나 대학에서 일했던 날에는 출입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경우는 빈번하게 있었다. 그들로부터 크게 신세졌던 사례도 꽤 많다. 한 가지만 예로 들어 보자.

문교부에 있었을 때의 경험담이다. 1983년 10월에 문교부 장관에 임명 되었는데 당시 문교부장관에 대한 요구 중 무게가 있었던 것은 졸업정원제 폐지와 대학입학시험문제에 주관식 사고를 반영시키는 일이었다. 전자는 대학 입학정원을 30% 늘리고 졸업할 때는 30%를 줄이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5공화국의 국책이었으며 장관 선에서 운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숙고 끝에 대통령에게 직언하기로 하였다. 졸업정원제를 없애달라고는 할 수 없었으며 여자 대학생은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제의하였다. 대통령은 설명을 듣고 나서 선뜻 나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둘째로 제기된 현안, 즉 대학입학 시험문제에 주관식 사고를 반영토록 한다는 안은 간단하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묘안이 떠오르지 않는다. 머리 한구석에서 '논술고사'가 떠올랐다. 그렇지만 자신이 없었다. 그러던 차에 출입기자 생각이 났다. 당시 문교부에 출입하던 기자 중에서 조선일보 고학용(高學用)기자, 동아일보 송석형(宋錫亨)기자, 중앙일보 권순용(權淳庸)기자는 장기간 출입하고 있던 기자였고, 문교부의 내용이나 문교정책 등에 관하여는 어느 누구보다도 지식이 많다고 생각되었었다. 하루는 이들 세 기자를 오찬에 초청하였다. 그리고 대학입시에 주관식 사고를 도입하는 안에 관하여 의견을 물었다.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 논의가 벌어졌다. 결론은 '논술고사'로 낙착되었다.

나는 곧 중앙교육심의위원회를 소집하였다. 신문기자들의 의견이라고 할 수는 없었으며 문교부 내의 의견이라고 설명하면서 '논술고사'안을 소개하였다. 그랬더니 약간의 토론이 있기는 하였지만 참석했던 위원 전원이 이 안에 찬성하였다. 이리하여 절차를 밟아'논술고사' 제도를 발표하였다.

이 제도는 나의 재임 중에는 실시하지 못했고 후임인 손제석(孫製錫)장관이 실행하였지만 단명으로 끝났다. 그러다가 수 년 후에 다시 살아났다. 앞서 소개했던 세 기자는 우리나라 언론 발전에 다대한 업적을 남긴 분들이며, 논술고사가 등장할 때마다 나는 이 분들을 떠올리고 경의를 표하게 된다.

2011년 6월30일(목)오후 3시 한국기독교회관에 있는 나의 사무실에서 김수혜 조선일보 기자와 인터뷰를 하였는데 그때까지 나는120만원 클럽'의 존패를 모르고 있었다. 한 달에 평균 10만원(1년에 120만원)정도의 도서를 구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룹 명칭이라고 한다. 1~2번 대량 주문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3~6개월 이상 꾸준하게 4곳(교보문고·영풍문고·예스 24?인터파크 도서)에서 책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을 연령별 ·거주지역별 등으로 통계를 잡았다고 하는데 가장 고령이 88세이고 남 ·녀 한 사람씩 있다고 한다. 이 중의 하나가 내 자신이고 그 까닭에김 기자가 나를 인터뷰한 것이다. 그렇고 보니 나는 가끔 교보문고에 들러 책을 구입하는데 교보문고 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구입액수를 알게 된 모양이다.

어쨌든 신문기자 중에는 비상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많다.

'120만원 클럽'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내가 만난 김 기자는 '책'에 관하여 보기 드물게 박식한 분이었다. 출판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지만 여러 책의 내용을 대단히 정확하게 알고 또 기억하고 있는 분이다. 나는 책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을 잊는 경우가 많다. 가령 내가 애독한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이야기할 때 여주인공인 '나타샤'가 생각나지 않아 우물쭈물하자 김 기자가 알려주었다. 한 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같은 해프닝이 생겼다. 김 기자가 나에게는 특별한 분으로 비쳐졌다. 그가 쓴 기사가 7월 2일 조선일보에 실렸는데 마음에 들어 옮긴다.

장관이 책 읽는 이유: "웃으며 죽기 위해서 책 읽고 또 읽어"

120만원 클럽 가운데 최고령은 88세(1923년생). 『생각 버리가 연습』(21세기북스) 같은 최신 베스트셀러부터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민음사) 같은 고전과 일본만화 『신의 물방울』 시리즈(학산문화사)를 거쳐 『르네상스는 무엇이었나』(일본 신조문고) 같은 외국 학술서까지 종횡무진 읽는다. 그러는 틈틈이 『치과의사와 이빨요정』(신밧드미디어) 같은 어린이 책을 사서 증손주 3남매에게 선물한다.

주인공을 추적해보니 권이혁 전 보건사회부 장관, 서울대병원장, 문교부·환경처장관을 거치며 바쁘게 중장년을 보냈다. 1일 서울연지동 사무실에서 만난 권 전 장관은 "손주들까지는 귀여운 줄 몰랐는데, 증손주를 보니 고놈들이 너무 예뻐 일요일마다 광화문 교보문고에 데려가서 내 책도 사고 그림책도 사준다"고 하였다.

"젊어서부터 책 좋아했어요. 1941년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입학하여서 만돌린부에 들어갔어요. 보름간 정말 열심히 만돌린을 쳤어요. 난 뭐든지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만돌린부 부장(선배)이 불러 '권 군이 있으면 우리 부에 발전이 없다'고 쫓아냈어요. 이후 독서·축구·농구 세 가지에 골몰하였는데 축구·농구는 노상 야단맞아도 독서는 정말 즐거웠어요."

권 전 장관이 꼽은 '내 청춘의 책'은 『좁은 문』, 『죄와 벌』, 『전쟁과 평화』였다. "특히 『전쟁과 평화』는 정말 재미있었어. 귀족 장교 안드레이와 아름다운 소녀 나타샤, 대갓집 서자(庶子) 피에르의 관계가 멋지게 그려져 밤을 꼴딱 새웠지요.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을 때라 청춘의 번뇌와 전쟁의 참상을 다룬 책이 절실하게 다가왔어요."

그는 "한평생 책을 모았지만 서재는 없다"고 하였다. 그는 2009년 12월 평생 해로한 부인을 먼저 저세상에 떠나보냈다. 뇌출혈로 쓰러져 9년 7개월간 투병한 끝이었다. 그는 부인을 위해서 서울대병원과 가까운 동네(성북동)로 이사하면서 집에 있던 책 7000여권은성균관대에, 졸업장·훈장 등은 서울대 의학박물관에 기증하였다. 노년의 불편에 대해서 그는 직설적으로 말하였다.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자꾸 침침해져요. 이런 것을 의학적으로는 '부분사망'이라고 하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부분 사망이 축적되어 진짜 사망이 되는 거야. 사람은 예외 없이 반드시 죽는데, 그럼 '어떻게 죽을 것인가 많이 생각해요."

그는 "내 목표는 '웃으면서 죽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권 전 장관이 스스로 실천하고 젊은이에게 권하는 인생 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젊었을 때부터 많이 걸을 것. ②남이 해주는 일을 고맙게 여길 것 ③즐겁게 살고 현명하게 늙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을 것.

권오을 前의원 2015년 포럼오늘 신년좌담회

경제포럼 이어 "정치가 더 문제다"

지난 1월 22일 오후2시 국회헌정관에서 '사단법인 포럼오늘'(공동대표 권오을 전의원, 조장옥 서강대경제학교수)이 매일경제신문·MBN후원으로 주최한 '대한민국호' 어디로 가나(정치가 더 문제다) 2차 신년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진행사회로 권오을 포럼오늘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하여 "을미년 새해 포럼 '오늘' 신년좌담회를 찾아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주신 김형오 전 국회의장님, 김병준 국민대 교수, 심지연 경남대 교수,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감사합니다. 또한 축사를 보내주신 정의화 국회의장, 김무성 새누리당대표최고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좌담회를 후원해주시는 매일경제 신문사와 MBN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 후, 저가 처음 정치 입문시 도의원 친구 우영길 경북의정회 회장께서도 멀리 경주에서도 참석해주셔 감사드린다고 거듭 인사하였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해방이 되고 정부를 수립할 때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은 수출주도 성장전략을 펼치면서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로 평가되었고, 비록 정치적 격변을 ㅡ긴 했지만 1987년 현행 헌법체계를 정착시키며 민주화도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달성을 목전에 둔 시점에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행복지수는 이러한 성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민이 따뜻하고 부자가 떳떳하며 국민모두가 행복한 '공평사회' 건설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후손에게 물려줄 '통일한국'은 부단히 추구해야 할 역사적 소명이라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이런 시점에 포럼오늘은 지난주 '경제가 문제다'라는 주제로 1차 좌담회를 개최한 이후, 오늘은 '정치가 더 문제다'라는 주제로 연속 좌담회를 준비했습니다." 라고 인사말 했다. 이어 선정된 패널 약력소개로 김형오 前 국회의장 (現)부산대석좌교수, 김병준 전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 국민대교수, 심지연 전 한국정치학회협의회장 경남대교수, 임현진 전 한국사회과학협의회장 서울대명예교수, 최장집 고려대명예교수 등 소개하였다.

△진행(권오을 포럼오늘공동대표 前의원)좌담 토론순서를 안내 설명 후, 권 대표는 "정치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며 현제의 경제난도 정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극복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구축해 줄 수 있다." 고 말했다. 또한 "서민이 따뜻하고 부자가 떳떳한 나라, 나아가 국민의 행복한 '공평사회' 달성이 시대적 책무이며, 통일한국의 국가상(象)일 것" 이라고 강조 하였다.

△발제에 나선 김형오 前 국회의장은 "웃으며 들어갔다가 울며 나오는 것이 청와대" 라며 "막강한 권한은 강력한 저항을 동반한다." 며 개헌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또한 선거구제 개편,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갤린더식 운영의 상시국회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토론에서 "현재 정치권과 국회는 사회변화를 이해하지도, 이를 제대로 의제화 하지도 못하고 있다." 며 "국민투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방분권을 통한 종적분산과 유럽과 같은 조합주의적 기구들을 만들어 (준)입법권을 부여하는 횡적분산을 제안했다.

△심지연 경남대 명예교수는 "개헌논의와 관련된 정부형태, 선거구 확정과 관련된 선거제도는 합의점을 찾기도 힘든 난제이며, 그렇다고 민주주의를 보장하지도 않는다." 며 "결국 정당민주화가 국민적 합의점을 찾기 쉽고 또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첩경"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가 더 문제다 라고 하는데 정당이 더 큰 문제다" 며 현재 정당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정치가 없는 시대" 라며 이렇게 엉망인 나라가 어째서 망하지 않나" 라는 한 원로 사회과학자의 말을 인용하며 시작했다.

"21세기 한국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협치(協治)" 라며 국가와 시민사회, 시장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협치만이 세계화의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지배양식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의 개헌논의를 언급하며 "건국 이래 열번이나 헌법을 개정했으나 단기적 시야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이해가 작용해 국민주권의 신장이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며 "헌법개정의 방향은 국민주권의 확대를 겨냥, 권력구조 개편을 넘어서야 한다" 고 강조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현재 정당정치에 대한 비판을 넘어 폄하하고 조롱하는 경향이 강하다" 며 최근 헌재의 역할이 '정치의 사법화' 를 불러왔고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라는 말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정치는 균열과 갈등을 해소하는 갈등의 제도화이며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중심기제" 라며 정당정치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 한국민주주의 나아가 한국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오을 사단법인 '포럼오늘'은 2009년 10월 창립, '오늘에 맞는 정치, 오늘을 아는 경제, 오늘을 사는 우리' 라는 모토하에 현재까지 129차례의 세미나와 8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는 창립7년차의 종합 시사포럼으로 금년 초 부터는 시대적 현안을 진단 조명하는 지난 15일은 "경제가 문제다" 논제로 이필상 전 고려대총장의 진행으로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 안국신 전 중앙대총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진념 전 경제부총리가 경제원로 토론자로 참석해 500여명의 참석자와 함께 2시간 30분에 걸쳐 경제 전반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한바 있다. 〈권범준 기자〉

◇국회헌장 기념관 대강당에서 포럼오늘 주최 신년좌담회 진행모습.

◇좌담회 후 참가한 토론자들과 기념촬영 모습. (좌로부터 김병준교수, 최장집교수, 심지연교수, 조장옥 포럼오늘 공동대표, 권오을 사회자 본포럼 공동대표, 김형오 전 국회의장, 임현진 교수)

재미있는 나무 이야기 ⑬

모과나무

▣ 靑南 權寧漢(안동전통문화연구회장)

모과, 모과하면 누구라도 '그 못생긴 과일'할 정도로 못난이 과일로 알려진 유명한 과일입니다.

너무나 흔하고 잘 알려진 과일입니다만 처음 모과를 보는 사람은 누구라도 네 번 크게 놀란다고 합니다.

우선 첫째는 너무나 못생긴 그 외형에 놀라고, 두 번째는 잘 익은 모과의 좋은 향기에 놀라고, 세 번째는 이렇게 향기가 좋은데 그 맛은 어떨까 하고 맛을 보고 놀라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 맛이 고약한 모과가 한약 재료로 많이 쓰이고 있다는 데 놀란다는 것입니다 .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고 과일전 망신은 모과가 시킨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모과가 못생겼다는 것을 풍자한 말인데, 모과는 못생긴 것일수록 그 특성이 강하며 더욱 모과다워, 못생긴 모과일수록 향기도 높고 약호도 좋다고 합니다. 진정 모과는 생긴 모양이 멋 대로여서 볼수록 낭만적입니다.

사람에게 비유한다면 아무 옷이나 되는대로 걸쳐 입고 소탈한 차림을 한사람과도 같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모과를 보면 무척 편안합니다. 격식이 없고 그야말로 자유롭게 생겨서 백 개면 백 개 모두 특이한 개성이 있습니다. 미술 작품에도 '우형의 미'가 더 높은 경지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강조되고 있는데, 이 이치를 모과는 이미 태고 적부터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골동품 항아리를 구해도 고려청자처럼 반듯하고 완전하며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것은 물론 좋지만, 약간, 삐뚤어지고 이지러진 것도 그런대로 멋이 있습니다. 형상이 바보스럽기에 자유로운 낭만이 있고, 부족함이 있기에 그 속에 더할 수 없이 재미있는 해학이 있고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곡선이 있습니다. 한 개의 모과를 받침대에 올려놓고 360도 어느 방향에서 봐도 새롭게만 보이는 것은 모과가 가진 이 '우형의 미'탓입니다. 그러기에 모과는 못생긴 것일수록 좋다고 하는지 모릅니다. 무엇이든지 완벽한 것은 그것을 지키려면 힘들고 고달픕니다. 넥타이를 단정히 매고 바지에는 주름선이 서도록 다림질을 해서 날을 세우고 머리도 한 올 흩어짐이 없이 반듯하게 손질하고, 남의 집 손님으로 가서 손님 노릇하기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드는지 모두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캐주얼을 입고 친구들과 아무렇게나 기대 앉아 담소하는 것은 얼마나 편합니까.

모과는 바로 그러한 과일입니다. 모과나무는 장미과에 속하는 활엽 관목입니다. 크게 자란 것은 20m이상인 것도 있고 굵기가 70~80cm이상인 것도 있습니다. 줄기는 플라타너스처럼 자람에 따라 늘 낡은 껍질을 벗는데, 그 때문에 아침이슬이 내릴 때면 모과나무 둥치의 얼룩무늬는 이슬에 젖어 참 보기 좋습니다.

꽃은 붉은색이고 5월에 피는데 작고 앙증스럽습니다. 중국이 원산인 이 나무는 비교적 따뜻한 기후를 좋아해서 중부이남 지방에 많으며 일본에도 많이 있습니다. 가을철, 우리나라의 시골 풍경을 돋보이게 하는 것 중에는 앙상한 가지에 잎 없이 매달려 있는 붉은 감과, 초가 지붕 위에 도사리고 있는 호박과 박, 그리고 온 마당을 붉게 장식하던 고추 등 많으나 나무에 매달려 그 못생긴 얼굴로 아래를 내려다보는 모과도 또한 크게 한 몫을 합니다.

열매뿐만 아니라 모과나무는 나무의 무늬가 고와서 목재도 여러 가지공예품을 만드는 데 귀하게 쓰입니다. 목각을 하는 사람은 모과나무를 참 좋은 소재로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는 손자들을 앞에 놓고"울퉁불퉁 모게야, 아뭇다나 굵어라……. 하고 노래를 하시며 아기의 건강만을 바라며 손자를 귀여워하셨습니다.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그때에는 우선 잘생기고 못 생기고는 뒤로 미루고'건강하게 잘 자라만다오.'하는 것이 할머니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요사이는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때맞추어서 무료로 예방 접종 해주고, 건강을 지켜주는 국가가 너무나 고마울 뿐입니다. 모과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선승이 산길을 가다가 작은 통나무 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 중간쯤 갔더니 나무다리 위에 큰 구렁이가 한 마리 또아리를 틀고 금방 스님에게 달려들 듯 독을 쓰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가자니 뱀에게 물릴 것만 같고 뒤로 물러서자니 다리가 너무 좁아서 계곡에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할 수 없이 눈을 감고 일념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바람도 불지 않는 잠잠한 날인데도 다리 위에 길게 가지를 뻗고 있던 굵은 모과 열매 한 개가 떨어져서 뱀의 머리를 맞추었습니다. 뱀은 깜짝 놀라 다리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무사히 다리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선승을 잘 보호한 공으로 그 후부터 모과는 성호과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장에 나가면 잘 익은 모과를 살 수 있습니다. 한두 개 방안이나 승용차 뒤에 놓아두면 그 좋은 향기로 가을은 더욱 즐거워지고 인생은 더욱 행복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못생긴 모과를 보며 한바탕 크게 웃어 보면 마음은 더욱 상쾌해 질것입니다.